

역사신학 연구의 최근 동향

Contemporary Trends of Church History Studies

이상규 교수

Prof. Th. D. Sang Gyoo Lee

- I. 일반적 경향-사회학적 접근
 1. 시카고 학파
 2. 사회학적 연구가 강조된 요인들
 3. '고백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이탈
- II. 초대 교회사 분야
 1.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2. 어거스틴 연구
 3. 어거스틴에 관한 새로운 사료의 발굴
- III. 중세교회사 분야
 1. 중세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
 2. 신비주의와 영성
 3. 지성사로서의 성자들에 대한 관심
 4. 교황사
 5. 후기 중세사 연구
- IV. 종교개혁사 분야
 1. 세가지 유형의 16세기 연구
 2. 신학사적(지성사적) 연구
 3. 신학사적 연구의 두가지 경향성
- V. 맺는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appraise recent studies on the church history and historical theology, which is mainly based on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influential journals, dissertations and books in English speaking world. In this research,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the Protestant historians and theologians who reflect on some aspect of contemporary research interests. To trace and evaluate the contemporary progress of church history as a theological discipline is, like every other branch of learning, beneficial because all of us can derive greater professional awareness from surveying the general streams found in scholarly practices in recent years. However, especially in Korea, no specific attempt has ever been made to describe the modern trends of church history studies.

The church history studies is characterized by both diversity and uniformity. Arguments supporting different topical focuses, ranging from the early church to contemporary issues, have added variety to the situation. Despite this diversity, however, the most dominant trend in church history studies in recent generations is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historical and theological enterprise. From 1920's so called 'Chicago school' pursued and provided historical theologians with a sociological perspective useful in trying to understand specific topics in church history studies, which became the main stream in recent years. This general framework provides us how, in the course of research, church historians gradually moved from 'confessionalism' of the reformational tradition.

이상규, 고신대학교 동 신학대학원 에서 신학석사(M. Div), 동 대학원 에서 신학석사(Th. M). 호주 멜보른 장로 교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연구. 호주신학대학(ACT)에서 박사학위(Th. D)취득. 현재 고신대 신학과 교로 재직. 주요 저서로 「한국교회의 역사적 흐름」, 「교회개혁사」, 「교회의 역사」 외 수. 1992년에는 통합연구학회의 학술상 수상

Church historians who have a special interest in sociological context of the religious affairs are not inclined to demonstrate doctrinal motive or efficacy. They are much more interested in delineating the impact of social conditions on religious teachings or theological debates instead of extolling religious influence on worldly patterns.

In the studies of early church history, high priority was given to early fathers, especially to the orthodox fathers including Athanasius of Alexandria, Gregory of Nissa, which enabled a new interpretation on the early Christian thought. A special focal point of research was Augustine. Unceasing interest was given to his thought on various topics of theological issues. Johannes Divjak's discovery of some new materials including fifteenth-century manuscript by Augustine in 1970's at the municipal library of Marseilles that contained letters high-lighted a renewed interest in studies of Augustine and his times. In medieval church history, issues such as mysticism and spirituality, saints as a culture type, history of popes and papacy, and Christian thought in later years of the medieval church were favoured field of studies by the Protestant scholars. Historiographical analysis helps us to demonstrate the ongoing interest on the Reformation studies. There has been three main approaches to sixteen-century studies, that is sociological, exegetical and theological method. Each approaches have the relative value of applying to meet the needs of critical investigation. However, sociological approach challenged to pose different questions in the cultural context. Historians who honor theological priorities propose to research sixteen~century history on the basis of ecclesiastical traditions and on wider religious settings or theological motives. With brief survey of the recent church history studies we can understand modern trends of historical studies, share current standards in scholarly activities.

오늘날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고, 신학기관이 다양한 시대에서 교회사 혹은 역사신학계의 동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학문이 다 그러하지만 역사신학 또한 연구범위가 넓고 주제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역사신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영미 등 영어권을 중심으로 교회사와 역사신학 분야의 중요한 저널에 발표된 글이나 출판된 저작을 중심으로 역사신학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I. 일반적 경향 - 사회학적 접근

역사신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두드러진 경향 중의 하나는 교회와 역사와 신학을 그 교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빛으로 읽고자 하는 사회학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막스 웨버(Max Weber)를 비롯한 사회학자들로부터 빛을 지고 있지만,¹⁾ 이것은 교회와 그 신학을 신학사적이나 교리중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려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은 신약학 연구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교회사 혹은 역사신학 전 분야의 연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1. 시카고학과

역사신학 영역에서의 사회학적 접근은 이미 1920년대부터 설리 잭슨

케이스(Shirley Jackson Case, 1872~1947)²⁾와 셔일러 매튜스(Shailer Mathews, 1863~1941)³⁾ 등 소위 '시카고학과'에 의해 강조되어 왔고, 에른스트 로메이어(Ernst Lohmeyer)⁴⁾, 아돌프 다이스만(Adolf Deissmann)이나 에른스트 폰 도프취츠(Ernst von Dobschutz)에 의해 크게 진전되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고대 교회사에 사회학적 접근 방식을 공유한 이들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모든 측면들, 곧 원시 그리스도교의 외부 현상뿐 아니라 케리그마적 신앙 그 자체도 사회문화적 요소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았을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역사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었다.⁵⁾

2. 사회학적 연구가 강조된 요인들

최근 20년 이래로 이런 사회학적 경향은 보다 두드러졌고, 교회나 신학적 문제는 그 시대적 정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들로는 로버트 그랜트(Robert M. Grant),⁶⁾ 게이저(J. G. Gager), 말허비(A. J. Malherbe), 티센

2) 캐나다의 뉴 브런스윅에서 출생한 그는 아카디아(Acadia)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1908-1938년까지 시카고신학교(Chicago Divinity School)의 신약 및 초대 교회사 교수였다. '타고난 자유주의자'라고 불린 그는 소위 시카고학파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 요소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발전을 단지 '자연스러운 환경적 영향'(natural environmental influences)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형이상학적 사변을 피하고 기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초대 교회의 관행들과 신학, 그리고 윤리의 발전을 각 시대의 필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한다. 이런 그의 견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술은 *The Evolution of Early Christianity*(1914)이다.

3) 포트랜드(Portland, Maine) 출신의 미국 신학자로 콜비(Colby)대학교를 졸업하고 1887~1894년까지 그 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그 후 시카고대학 신학부로 옮겨가 1933년까지 신약과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기간 동안 시카고학파를 주도한 학자였다. 그 역시 성경신학과 역사신학 연구에 있어서 극단적 기능주의자였고, 당시 미국의 근본주의에 반대하고 싸웠던 인물이다.

4) 로메이어는 초대 교회 시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시도하여 1921년 소책자를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마사제와 초대 교회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 경제적 사실을 제시하고 기독교를 이 사회적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Ernst Lohmeyer, *Soziale Fragen im Urchristentum*, Darmstadt, Germany, 1973 참고.

5) A. J. 말허비, 조태연 역,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1994, p. 15.

6) 그의 작품으로는 *Miracle and Natural Law in Graeco-Roman and Early Christian Thought*(1952)가 있다.

1) 종교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웨버의 대표적인 논저는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64이다.

(Gerd Theissen) 해롤드 레무스(Harold Remus)⁷⁾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역사 신학자는 진보적인 학자들에 비해 신학 외적 요인들, 곧 사회적 상황(context)에 비교적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적인 학자들은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넘어서 사회학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첫째 기독교 자체의 문서 자료는 기독교사와 신학을 해명하는데 부족하고 제한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역사신학 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전의 연구와 신학적 해석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자료의 편협성(parochialism) 때문에 기존의 연구방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새로운 학문의 경향성은 항상 그 이전의 연구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됨으로 이것은 자연스런 요청이었다. 셋째로 이런 변화의 배후에는 역사신학 연구가 교회나 교단적 우산 아래 있는 기존의 신학교육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신학연구가 일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반 종합대학교에 종교학과 혹은 종교학부가 생겨나고, 또 역사학과에 교회적 통제로부터 자유한 역사신학을 전공한 교수나 학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신학연구가 전통적인 신앙고백이나 기존의 신학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고백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이탈

이러한 추이에 따라 역사신학은 물론이지만 성경신학조차도 '고백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런 경향성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니버(Niebuhr)는 교회분열조차도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의한 요인이 더 강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고, 도즈(E. R.

Dodds)나 노크(A. D. Nock)는 심지어 4세기 이전의 순교(殉教)도 단순히 신앙적 요인과 그 확신의 행위로 보지 않고 당시의 대립적 조직의 갈등구조로 해석하고, 순교는 '죽음에의 동경'(libido moriendi)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도즈는 "이 세기들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사랑했다"⁸⁾고 했는데, 리들(D. W. Riddle)의 입장도 이와 비슷했다. 리들은 그의 저서 「순교자」(*The Martyrs: A Study in Social Control*)에서 순교의 현상을 상호대립적인 집단간의 충성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순교행위를 신앙고백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교회와 신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적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고대 교회사와 16세기 종교개혁사 연구에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교회와 신학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말은 기독교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라는 종교현상은 하나의 사회현상일 뿐이다.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가장 첨예한 논점이기도 했는데, 사회사적(social history) 연구는 신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그 이후의 교회사 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들과 그 주저로는 게르트 타이센(Gerd Theissen)의 「고대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Studien zur Soziologie des Urchristentums*),⁹⁾ 게이저(J. Gager)의 「왕국과 공동체」(*Kingdom and Community: The Social World of Early Christianity*), 벵코(Benko)의 「카타콤과 콜로세움」(*Catacombs and the Colosseum*), 핀레이(M. I.

8) E. R. Dodds, *Pagan and Christian*, p.132.

9) 이 책은 *The Social Setting of the Pauline Christianity*(Philadelphia, 1982)란 제목으로 영역되었고, 김명수에 의해 「원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역되었다(대한기독교서회, 1986). 또 타이센의 *Sociology of Early Palestinian Christianity*(Philadelphia, 1978)는 조성호에 의해 「예수운동의 사회학」이란 제목으로 역간되었다(종로서적, 1981). 이상의 책 외에도 타이센은 초기 그리스도교에 대한 다양한 사회학적 연구 결과를 출판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Gerd Theissen, "Wanderradikalismus: Literarsoziologische Aspekte von Worten Jesu im Urchristentum,"

7) 그의 대표적인 저술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집필한 *Pagan-Christian Conflict over Miracle in the Second Century*(Patristic minigraph Series 10, Cambridge, Massachusetts: Philadelphia Patristic Foundation, 1983)가 있다

Fineley)의 「고대 사회의 경제적 상황」(*The Ancient Economy*, 1973), 말헤르베(A. Malherbe)의 「초기 기독교의 사회적 상황」(*Social Aspects of Early Christianity*) 등이 있다. 또 많은 박사학위 논문들이 초기 교회가 처한 사회적 측면을 취급했는데, 이런 저작들은 주로 노예제도, 여성의 위치, 가난과 부, 그리고 로마제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취급했다. 예컨대, 스콧트 바르치(S. Scott Bartchy)의 *Mallon chresai: First Century Slavery and the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7:21* 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로마 문명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방법론과 연구결과들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경향은 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그 시대적 상황의 빛으로 읽게 해주지만 때로는 종교적 혹은 신학적 동기를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위험이 있다.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시부터 역사신학연구의 주요한 패라다임이었던 고백주의적 성격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II. 초대 교회사 분야

초대 교회사란 주로 6세기까지의 역사를 말하는데, 교부들에 대한 연구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또 원시 기독교와 고대 교회 혹은 초대 교회 간의 경계의 문제도 심각한 논의의 주제였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회사가들 에게만이 아니라 신약학자들도 동일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원(原)교회 혹은 원시 교회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고대 교회로 혹은 초대 교회로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LXX(1973), 245-71; "Theoretische Probleme religionssoziologischer Forschung und die Analyse des Urchristentums," *Neue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und Religionsphilosophie*, XVI, 1974, S. 35-56. 그는 특히 고린도교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고전 1:26-29을 중심으로 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적 계층을 분석하고, 이 계층적 특징이 고린도교회의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Gerd Theissen, "Soziale Schichtung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Ein Beitrag zur Soziologie des hellenistischen Urchristentums,"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LXV, 1974, S. 232-272.

발전했는가 하는 문제는 '본래적인 것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소위 교회의 변질이나 타락의 규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심각한 논의의 주제였다. 이것이 소위 '초기 카톨릭주의' (Early Catholicism)의 문제였다. 초기 이단과 분파, 기독교 선교의 확산, 그리고 로마제국과의 관계, 제국의 종교로서의 기독교(Constantinian Christianity) 또한 중요한 주제였다.

1.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고대 교회사 분야 연구에 가장 혁혁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은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이었다. 그는 역사신학 연구에 있어서 역사-비판적 방법을 도입한 인물로서, 특히 첫 3세기 동안의 기독교의 선교와 확산에 대한 의의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라이트풋트, 제베르크, 캄펜하우젠, 페리칸(Jaroslav Pelican) 등에 의해 초기 교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교회사학계는 초기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¹⁰⁾ 즉 초대 교회사 분야에서 교부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¹¹⁾ 금세기 초 이래로 사료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논저들은 케를 하리스(Carol Harris)가 편집하는 '초대교부 연구시리즈'인데, 그 중의 하나가 앤드류 로스(Andrew Louth)의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이다.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이들의 문서를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학의 일면을 연구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오늘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저술된 스

10) 최근의 초대 교회사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는 퍼거슨(Everett Ferguson), 프렌트(W. H. C. Frend), 그리고 맥휴(M. P. McHugh) 같은 학자들이다. 특히 퍼거슨은 18권으로 된 「초대 기독교 연구」(*Studies in Early Christianity*, Garland, 1993)라는 방대한 책을 편집하였다.

11) 교부들의 문헌과 저작을 수집하고 출판하여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인물은 프랑스의 신부 미네(J. P. Migne, 1800-1875)였다.

터크(Andrea Sterk)의 연구(*Basil of Caesarea and the Rise of the Monastic Episcopate*, Princeton, 1994), 레질 바나드(Leslie W. Barnard)의 저스틴에 대한 연구(*Justin Martyr: The First and Second Apologies*, N.Y.: Paulist Press, 1977)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나드의 연구는 저스틴의 제1, 제2 변증서를 다시 영역하고 해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세기 상황에서 저스틴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흔히 변증가들은 기독교도들을 향한 각종의 비난들, 곧 무신론, 불법의 종교, 인육식(homophagia) 등 낭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사회의 암적 존재라는 주장에 대해 변명, 변호한 자들로 말해 왔지만 최근 역사신학계의 동향은 변증가들의 작품을 이방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하면 변증가들의 변증서가 황제나 고위 관리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도록 청원하는 글이 아니라, 당시 세계에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전도할 목적으로 기독교의 가치와 진리성, 고유성을 소개하고자 했던 선교적 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¹²⁾ 실제로 황제가 변증가들의 변증서를 받아 보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도리어 이런 변증서들이 당시 교회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많은 증거가 있을 뿐이다.

개신교 학자들의 교부연구는 아리우스나 이폴리나리스 혹은 네스토리우스보다는 정통적인 교부들인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 요한 크리소스톰, 혹은 니사의 그레고리¹³⁾ 등에 치우쳐 있다. 이들 교부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특히 삼위일체 교리나 기독교론의 생성, 이와 관련된 교회 회의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학자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부는 나시안 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30~389)인데, 모레스치니(C. Moreschini)와 사익스(D. A. Sykes)의 「나시안주스의 그레고리」(*St. Gregory of Nazianzus: Poemata Arcana*, Oxford: Clarendon,

1997)는 그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 오늘의 교부연구의 성과와 동향을 잘 정리한 개론서는 켈리(Joseph F. Kelly)의 「교부들의 메시지」(*Message of the Fathers of the Church*, Collegeville, 1997)이다. 스티븐슨(Stevenson)의 4세기 이전까지의 교회사 사료선집인 *New Eusebius*의 출판은 이상과 같은 교부연구나 초대 교회의 기독교적 상황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준 것이 분명하다. 스티븐슨의 *New Eusebius* 외에도 헨리 벤티슨(Henry Bettenson)이 편집한 사료집인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Oxford University Press, 1943, 1986) 또한 교회사 연구자들에게 요긴한 자료를 제공했다. 스티븐슨의 것은 20세기까지 교회사사의 주요 사료를 선별하여 편집하였다.

2. 어거스틴 연구

교부연구에 있어서 “어거스틴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1967년 영국 더햄대학교의 브라운(Peter Brown)교수가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을 출판한 이래 어거스틴 연구는 새로운 주목을 얻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천주교 학자와와 개신교 학자 모두에게 가장 많이 연구된 인물로 남아 있다. 서양의 교회사와 정신사의 토대를 놓은 인물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최후의 위대한 라틴교부로서 동·서방의 신학을 종합하여 후세에 교회적, 신학적, 정신적 유산을 남겨 주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어거스틴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여성신학자인 클라크(Elizabeth A. Clark)이다. 그는 1996년 「결혼과 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St. Augustine on Marriage and Sexuality*)을 출판했다. 다른 한 사람은 로버트 오코넬(Robert J. O'Connell)인데, 그는 이미 1969년에 역저 「어거스틴의 초기 인간관」(*St. Augustine's Early Theory of Man*)을 출판한 바 있고, 1994년에는 *Soundings in the St.*

12) James E. Bradley & Richard A. Muller, *Church History*, Eerdmans, 1995, p.6.

13) 니사의 그레고리에 대한 연구는 1921년 독일의 예거(W. Jaeger)와 랑어벡(H. Langerbeck)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Augustine's Imagination*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어거스틴의 초기 저술에는 플라톤적인 타락한 혼 인간학(fallen soul anthropology)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책을 통해 플라톤주의자인 동시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역설(paradox)의 문제를 안고 씌름하였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어거스틴 연구서(*Images of Conversion in Augustine's Confession*, NY: Fordham Univ. Oress, 1996)를 출판하기도 했다.

3. 어거스틴에 관한 새로운 사료의 발굴

오늘에 와서 어거스틴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에 동기를 준 것은 1960년대 후기 오스트리아 과학원(Austrian Academy of Sciences)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어거스틴의 저작과 문서를 수집하고 목록화를 시도하는 방대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하네스 디비잭(Johannes Divjak)은 이 작업에 참여하여 1970년대 불란서역본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에 마르세이(Marseilles)시립도서관에서 15세기 문헌을 발견했는데, 이 문헌 속에는 그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거스틴의 편지들을 찾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연구원들은 처음 이 문서를 위조 문서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으나 세심한 분석 결과 그것이 어거스틴의 진품 서신임을 알게 되었다. 후일 그는 파리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in Paris)에 보관된 12세기 문서 가운데서 동일한 자료를 발견하여 자신의 어거스틴 서신의 진정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디비잭이 발견한 새로운 서신 중에 27통은 어거스틴이 쓴 편지였고, 2통은 스페인계 성직자였던 콘센티우스(Consentius)가, 다른 1통의 편지는 제롬(Jerom)이 쓴 것이었다. 디비잭은 이 서신들을 모아 「라틴교회의 문헌집」(*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이란 제목으로 1981년 출판하였다.¹⁴⁾ 이 서신

14) 어거스틴의 새로운 서신이 출판된 1981년 이후 이 서신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1982년 9월에는 파리에서 어거스틴 연구소(Institut des Etudes Augustiniennes)가 주관하는 학회가 열렸는데, 대륙

들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초기 교회사 학자나 어거스틴 연구가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고 있다. 즉 이 서신들은 어거스틴의 말년인 415년에서 430년 여간에 씌어진 것으로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예컨대, 도나티스트와 펠라기안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고, 프리실리안주의(Priscillianism)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점증하는 노예무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와 사회-정치적인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어거스틴에 대한 문헌 정리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어거스틴에 관한 연구만이 아니라 5세기 이전의 로마와 아프리카 지역 교회의 신학과 교회생활, 그리고 교황제도의 확장(African-papal relations를 포함하여), 교리 논쟁과 이견들, 개별 교부들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저작이 메르딩거(J. E. Merdinger)의 「어거스틴 시대의 로마와 아프리카교회」(*Rome and the African Church in the Time of Augustine*)이다.¹⁵⁾ 이 책은 프렌드(W. H. C. Frend)교수의 지도 하에 글라스고대학교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출판한 것이지만 5세기 이전의 초대 교회사, 특히 로마와 북아프리카 교회의 신학과 어거스틴의 신학의 원류를 해명하는 데 매우 값진 노작이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어거스틴과 그 시대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지만 새로 발견된 자료를 섭렵하고, 로마와 아프리카 교회, 어거스틴 당시의 로마와 아프리카 교회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아프리카 교회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터틀리안, 키프리안 그리고 옵타투스(Optatus)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권징과 치리, 교회 정치적인 문제들, 곧 아피아리우스(Apiarius), 호노리우스(Honorius), 프

과 영국에서 선정된 학자들의 새로 발견된 서신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듬해에 이 논문들이 Claude Lepelley의 편집으로 *Les Lettres de Saint Augustin découvertes par Johannes Divjak: Communications presentées au Colloque des 20 et 21, septembre 1982*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학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다양한 문제와 주제들을 포함 한 가치있는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J. E. Merdinger, *op. cit.*, xi-xiv를 참고할 것.

15) 276면에 달하는 이 책은 Yale University Press에 의해 1997년 출간되었다.

살라의 안토니(Antony of Fussala)의 경우를 취급하였다. 이 책은 수세기 동안 교리적인 혹은 교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오랫동안 정당한 평가없이 방치되어 왔던 북아프리카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아피아리우스 사건(Apiarius affair)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사를 취급하는 학문에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은 그 이전의 모호했거나 불분명했던 사건들을, 혹은 편견에 의해 부당하게 이해되어 오거나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했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釋明)해 준다는 점에서 사료발굴 자체가 교회사 연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Ⅲ. 중세교회사 분야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사는 개신교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소외된 영역이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르네상스시대로부터 시작된 부정적 해석의 '경향성'에 기인한다.

흔히 교회사를 3시기로 구분하는 3분법은 르네상스기의 인문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이 시대 구분은 각 시대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르네상스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즉 그리스·로마 문화(고대)를 '최고의 이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시대로 단정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시대(르네상스)를 고대 문화가 되살아난 재생의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게르만 민족이 유럽으로 이동해 온 시대로부터 1천년간은 고대와 자기들의 시대 사이에 낀 시대, 곧 중세(Medium Aevum)라고 했다. 즉 3분법적 시대구분은 동가적(同價的) 기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중세를 폄하하는 언의적 의미가 있었다. 말하자면 3분법적 이해는 고대 문화가 중세로 이어진 연속성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 위에서 시도된 것이다. 중세를 이렇게 고립된 시기로 본 최초의 인문주의자는 이탈리아의 비온도

(Flavio Biondo, 1388~1463)였는데, 그후 중세는 흔히 Saeculum obscurum, 곧 암흑의 세기들로 불리게 되어 이 때로부터 중세를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¹⁶⁾ 물론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 시대였다는 점에서 암흑시대였고,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중세교회에 대한 관심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도리어 천주교 학자들에 의해 이 시기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천주교 학자들은 주로 스콜라신학, 수도원 제도와 역사, 중세의 예전과 설교문학 연구에 집중하였다.

1. 중세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러나 20세기초부터는 사학자들에 의해 중세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평가가 시도되었다. 중세는 초대 교회에 비해서 그 포용하는 문화권이 다양하여 기독교, 희랍정교, 그리고 이슬람 등 세 문화권을 포함하고, 시간적으로

16) 예를 들면 18세기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로마제국 흥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에서 중세를 “어둡고 침체된 전형적인 시대”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보다 한 세기 후에 「이테리 르네상스 문명사」(*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를 쓴 볼크하르트(J. Burckhardt)는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 근대 문명의 형성은 중세의 산물이 아니라, 중세에 등을 돌린 르네상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칸트(Kant)는 중세 문화를 “인간 정신의 비지성적 탈선”(Unintelligent digression of the human spirit)이라고 했고, 볼테르(Voltaire)는 중세기를 “미신, 편견, 폭력이 인간의 진보를 억제하는데 동역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의 논지에 따르면, 로마제국의 몰락은 고대 문명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사적 전기가 되는데, 이때부터 중세 천 년의 역사는 천체의 눈에 깊이 빠져들어 갔으며 중세야말로 고딕적(Gotic)인 어두움과 야만주의, 폭력과 미신이 넘쳐난 단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중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중세 문명은 고대나 근대보다도 훨씬 열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근대의 출현은 중세 동안에 준비된 것이 아니요, 바로 고대부터라고 보는 태도 때문이다. 중세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1900년대 이후 차츰 불식되어 가고 있다. 중세가 어둡고 정체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야만적이나 미신적, 또는 반동적” 측면만을 지니고 있던 시대는 결코 아니다. 사실 역사의 어떤 시기를 완전한 단절의 시대로 보고 그 이전 시대를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입장이 서거나 후속 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릇된 관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중세는 신약교회의 이념이 외면당한 어두운 시대였다고 본다.

17) R. Staats, “Das Mittelalter in der neueren kirchengeschichtlichen Literatur,” *VF* 25/1-2, 1980, S. 32-74.

는 1000년 간의 기간,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포함하는 광대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가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한마디로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는 반성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개신교 학자들에게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하우스(A. Hauck), 슈베르트(H. von Schubert) 등이 중세교회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모크로쉬(R. Mokrosch)와 발츠(H. Walz)는 중세교회와 신학연구에 유용한 사료집을 출판하여 이 분야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영어권에서는 마가렛 딘슬리(Margaret Deanesly), 윌리엄 캐논(William Cannon), 그리고 리처드 사우던(Richard W. Southern)¹⁸⁾ 등이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하였다. 특히 옥스퍼드대학교 성 존스 칼리지의 교수였던 사우던은 중세시대 종교적 제도들은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영적, 지적 이념 체계는 그 시대적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교회의 역사를 세속사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는 모든 것을 실재보다 그 의미가 희색된 종교적 모습(ecclesiastical appear)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¹⁹⁾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학자들의 중세교회와 신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소홀하다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스타아츠(R. Staats)의 평가처럼 중세교회사에 대한 개신교 측의 연구는 별로 기여한 바가 없었다.

개신교학자들의 중세사 연구가 미진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동향을 지적하면 적어도 다음의 4가지 영역, 곧 신비주의와 영성, 중세의 성자(聖者)들에 대한 연구, 교황사 그리고 후기 중세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18) 그의 대표적인 저술은 *The Making of the Middle Ages, Western Views of Islam in the Middle Ages, St. Anselm and His Biographer,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그리고 *Medieval Humanism and Other Studies* 등이 있다.

19)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Eerdmans, 1970, p. 16.

2. 신비주의와 영성

초대 교회사 연구가 주로 교부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중세사 분야는 신비주의와 영성(靈性)에 집중되어 있다. 1987년 질 레이트(Jill Raitt)교수가 「기독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 NY: Crossroad Press)을 출판한 일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연구는 오즈멘트(Steven E. Ozment)의 「영적인 인간」(*Homo Spiritualis*)인데, 이 책은 부제가 보여주는 바처럼 존 타올러, 진 게르손 그리고 마틴 루터의 초기 생애(1509~1516)에서 인간학의 문제를 각각의 신학사상의 맥락에서 상호 비교한 연구인데, 영성의 문제는 중세 신비주의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하에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 책이 중세사 연구, 특히 중세영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외에도 1996년 화란 라이덴에서 출판된 허쉬(John C. Hirsh)의 「신앙의 한계」(*The Boundaries of Faith*)는 기독교 사상사 연구 시리즈 67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중세 영성의 발전과 변천과정에서의 신앙의 역할을 사례연구(*series of exempla*)를 통해 추적한 주목받는 저서이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것은 이런 세계 교회와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3. 지성사로서의 성자들에 대한 관심

중세 성자(聖者)에 대한 연구는 단지 성자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성자의 삶의 정황에서 그 시대의 정신과 지적풍토를 읽으려는 의도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성자에 대한 연구는 한 시대의 신앙적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세 지성사와 신앙의식 그리고 사회사를 해명하는 방편인 셈이다. 그래서 성자연구는 개신교 학자나 천주교 학자들 그리고 일반 사학자들에게도 관심의 핵이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프랑스의 앙드레 바우체스(Andre Vauchez)의 「후기 중세기의 성자

들」(*Sainthood in the Later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이 있다. 1995년 이래로 파리 10대학(Univ. of Paris X) 중세사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1981년 파리에서 출판했는데, 일반적으로 중세 지성사 혹은 중세적 경건, 그리고 후기 중세기의 성자론에 대한 주목할만한 저서로 평가 받았다. 또 도널드 웨인스테인(Donald Weinstein)과 루돌프 벨(Rudolf M. Bell)의 「성자와 사회: 서구 기독교계의 두 세계」(*Saints and Society: The Two World of Western Christendom, 1000~1700*)는 1000년에서 1700년 어간에 살았던 864명의 성자들의 생애를 검토한 방대한 작품으로 이 분야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²⁰⁾ 물론 이 두 저서는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적인 기여를 한 존 맥크린(John M. Mecklin)의 「성자사: 문화형태에 관한 한 연구」(*The Passing of the Saint: A Study of a Culture Type*, Chicago, 1941)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

4. 교황사

개신교 학자들은 중세시대사에 무관심하면서도 교황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교황권(教皇權, Papacy)과 관련한 연구는 개신교 신학자나 교회사가만이 아니라 개신교 출신의 세속사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호의 대상이었다. 이런 전통이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에서부터 카스퍼(E. Casper)와 할러(J. Haller)를 거쳐 짐머만(H. Zimmermann)과 후르만(H. Fuhrmann), 그리고 영국의 울만(W. Ullmann)으로 이어진다.²¹⁾ 교황사(教皇史) 연구는 교황권(Sacerdotium)과 세속권력(Regnum)과의 관계에서나 교회의 변질과 퇴락, 그리고 중세적 교회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며, 종교개혁의 불가피성과 그 이

후의 교회쇄신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므로 개신교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교황권의 문제는 고대 교회의 태동에서부터 동서방교회의 우위권 대립과 분열, 국가권력과의 제휴와 대결 등 지난 2천년 간의 흥룡과 부침의 역사를 꿰는 줄이므로 신구교학자들에 의해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²⁾

이런 교황사 연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교황 레오 13세(Leo XIII, 1878~1903)의 바티칸 문서의 개방이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25년 간 교황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업적을 남긴 교황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1881년 바티칸 문서고를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1893년에는 칙서(Providentissimus Deus)를 발표하고 성경주석의 길을 열기도 했다.

5. 후기 중세사 연구

중세교회사 분야에서 개신교 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또 하나의 영역은 후기 중세사였다. 스콜라철학과 신학은 서양정신사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개신교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빈약했다. 그러나 후기 중세 분야는 종교개혁의 전사(前史)이기 때문에 개신교 학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중세 후기는 교황권의 쇠퇴기였고, 스콜라철학의 몰락, 민족주의의 대두, 그리고 공의회주의(conciliarism)의 대두, 르네상스운동 등 이전 가치의 해체와 새로운 개혁사상이 결합된 이념적 변화의 시기였다. 또 신비주의가 만연했고, 새로운 신앙운동(Devotio moderna 등)이 메마른 유럽의 대지를 적셔가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가 종교개혁을 열어가는 예비기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사가들에게 경원시 될 수 없었다. 이 후기 중세의 독창적인 사상가가 니콜라우스 카자누스(Nicholaus Casanus, 1401~1464)였는데, 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개신교

20) 성자에 대한 연구서로는 이 외에도 Stephen Wilson, *Saints and Their Cults*, Cambridge Univ. Press, 1985; Barbara Abou-El-Hai, *The Medieval Cult of Saints*, Cambridge Univ. Press, 1997 등이 있다.

21) 볼프강 비네르트, 요하킴 델하우젠(강원돈 역), 「교회사 연구방법과 동향」, 한국신학연구소, 1994, pp.77-78.

22) 개신교 측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Elliot-Binns, J.,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Medieval Papacy*, London: 1934; Bum-Murdoch, *The Development of the Papacy*, London: Faber and Faber, 1954가 있다.

학자들의 스콜라철학 연구도 후기 중세사와 관련하여 연구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 칼 바르트(K. Barth), 판넨베르크(W. Pannenberg), 에벨링(G. Ebeling) 등을 꼽을 수 있다.²³⁾ 볼프강 비네르트와 요하임 멜하우젠에 의하면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설정된 루터연구와 자신의 안셀무스 연구 때문에 바르트가 후기 스콜라철학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어떻든 개신교 학자들은 지난 1980년대 이래로 중세사에 대한 미약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후기 중세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는 의외의 관심을 보여왔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하바드대학교의 스티븐 오즈멘트(Steven Ozment)교수²⁴⁾, 오크만(F. Oakman)교수²⁵⁾, 그리고 헤이코 오버만(Heiko A. Oberman)교수, 독일의 경우 뮐러(B. Moeller)교수를 들 수 있다. 아리조나대학교의 중세사,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사 교수인 오버만은 본래 종교개혁사에 취중하지만 그의 「종교개혁의 여명」(*The Dawn of the Reformation*)에서 종교개혁 사상은 근본적으로 중세후기의 사상사적 맥락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세 후기의 개혁세력(Reforming force)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후기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불연속적인 사상적 단절로 보지 않고 이념적 상관성을 정립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중세후기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사상사적 이해는 앞서 언급했던 중세사가 사우던(Richard W. Southern)과 동일하다. 또 뮐러는 오버만이 후기 중세의 신학분과들에 대한 연구에 취중하는 반면, 정치, 사회적 영역에 나타난 일반적 개혁세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세신학의 가을에 관한 작품과 후기 스콜라 신학과 종교개혁을 취급한 저작을 남겼다.²⁶⁾ 어떻게 이런 연구 경향의 결과로 1980년대 이후에는 개신교 학자들에 의한 중세사 연구가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해졌다.

23) 볼프강 비네르트, 요하임 멜하우젠, *op. cit.*, pp84.

24)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The Age of Reform, 1250-1550*, Yale, 1979과 그가 편집한 *The Reformation in Medieval Perspective*, Quadrangle, 1971가 있다.

25) 대표적인 저작은 *The Western Church in the Later Middle Ages*, Cornell, 1985이다.

26) 볼프강 비네르트, 요하임 멜하우젠, *op. cit.*, p. 89.

IV. 종교개혁사 분야

종교개혁사에 관한 연구는 역사신학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분야 중의 하나이고, 적어도 개신교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분야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었다. 19세기의 소위 '루터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사 연구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칼 홀(K. Holl), 에밀 두메르고(Emile Doumergue), 파커(T. H. L. Parker), 베인톤(Bainton), 스탠포드 리드(Stanford Reid) 등이었다. 이들에 의해 추진된 종교개혁사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수많은 단행본과 개설서들이 출판되었다. 종교개혁사에 관한 방대한 전집(예컨대, *Corpus Reformatorium*과 *Opera Selecta*)의 출간은 이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1. 세가지 유형의 16세기 연구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연구 또한 실로 다양하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동향을 한 가지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칼빈연구를 포함한 16세기 연구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학적 연구, 주경사적(exegetical history) 연구, 그리고 신학사적 연구가 그것이다. 이런 유형별로 종교개혁사 연구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회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자는 로버트 킹돈(Robert Kingdon)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는데,²⁷⁾ 이 논문에서 그는 사회학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 외에도 "1562년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범죄와 처벌" (Crime and

27) 예컨대 Kingdon, Robert M.,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1971, pp. 50-69; "The Control of Morals in Calvin's Geneva," *The Social History of the Reformation*, ed., Laurence P. Buck and Jonathan W. Zophy,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2, pp. 3-16를 들 수 있다.

Punishment in Calvin's Geneva, 1562)²⁸⁾이라는 논문을 쓴 윌리엄 몬터(William Monter), 「칼빈과 사회복지」(*Calvin and Social Welfare*)²⁹⁾라는 책을 저술한 지니 올슨(Jeannine Olson),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사회관심」³⁰⁾을 쓴 윌리엄 인네스(William Innes) 등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 16세기 연구에 있어서 사회사적 혹은 경제사적 접근은 그간 종교개혁사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였다. 물론 세속사가들은 종교개혁사와 그 신학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적' 동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동기를 강조해 왔지만 이제는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종교 외적 상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런 측면의 연구는 16세기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성숙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사 연구에 있어서 주경사적 접근을 하는 이들로써 파커(T. H. L. Parker), 데이비드 스테인메쯔(David Steinmetz),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수잔 슈라이너(Susan Schreiner) 그리고 이레나 베쿠스(Irena Backus) 등이 있다. 특히 칼빈의 전기를 집필하기도 했던 파카는 「칼빈의 구약주석들」,³¹⁾ 「로마서 주석 연구」³²⁾ 등의 저서를 통해 종교개혁사 연구를 주경사적으로 시도하였다.

2. 신학사적(지성사적) 연구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비록 종교개혁사 연구의 두 가지 경향이 있지만 '신학사적(神學史的)' 혹은 '지성사(知性史)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도로 전문화된 학자들에 의한 세세한 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개혁자들의 사상체계와의 상호관련성을 추적하

는 비교 신학사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신학사적인 전통의 계승과 단절, 새로운 교의의 형성, 신학 사상적 유사성과 이견들을 해명하게 되었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간주되어 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요구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경향성, 혹은 신학사적 연구성격을 반영한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가 편집한 「마틴 부셔, 개혁하는 교회와 공동체」(*Martin Bucer,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Cambridge Univ. Press, 1994), 브렌덴 브라드쇼(Brendan Bradshaw)와 에이몬 두피(Eamon Duffy)가 편집한 「인문주의, 개혁, 종교개혁」(*Humanism, Reform and Reformation, The Career of Bishop John Fisher*, Melbourne, 1989)이 있고, 또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³³⁾의 「종교개혁사상입문」(*Reformation Thought*, Baker, 1988)이 있다.³⁴⁾ 맥그래스는 그의 작품에서 칼빈은 사상사적으로 볼 때 *via moderna*, 좀더 분명히 말해서 *schola Augustiniana moderna*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³⁵⁾ 그리고 침례교 학자인 에스텝(William R. Estep)³⁶⁾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Renaissance and Reformation*, 1989), 오버만(Heiko A. Oberman)³⁷⁾

33) 맥그래스는 복음주의적인 역사신학자로서 조직신학적 방법론으로 역사신학을 접근하고, 역사신학적 바탕에서 조직신학의 주제들을 취급하는 탁월한 학자이다. 그는 현대의 첨예한 토론의 주제들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해명해 주고 있는데, 그의 기독교 인물들에 대한 전기적 저술인 「기독교사상가 10인」(*A Cloud of Witnesses*, IVP, 1992), 그리고 그의 *Christian Theology: A Introduction*이 김홍기, 이형기, 임송안, 이양호에 의해 「역사 속의 신학」이란 제목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 의해 출판되었다(1998). 그는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역사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34) 이 책은 박종숙의 번역으로 성광문화사에서 1992년 출간되었다.

35)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만 토랜스(T. F. Torrance)는 칼빈은 중세 후기 *devotio moderna* 혹은 John Major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스테인메쯔도 이 입장에 동의했다.

36) 그는 이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운동」(*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Movement*, Concordia, 1987)이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을 저술한 바 있는데,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에 이르는 이념적 전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37) 오버만은 이미 중세후기와 종교개혁 초기의 사상적 발전을 취급한 「종교개혁의 여명」(*The Dawn of the Reformation*, Eerdmans, 1992), 그리고 「종교개혁, 그 뿌리와 분파들」(*The Reformation, Roots and Ramifications*, Eerdmans, 1994)을 출판한 바 있다.

28) *Archive für Reformationsgeschichte*, 64, 1973, pp. 281-287.

29) Jeannin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London: Associated Union Press, 1988.

30) William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A: Pickwick Pub, 1983.

31)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Edinburgh: T&T Clark, 1986.

32) *Commentari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1532-1542*, Edinburgh: T&T Clark, 1986.

의 「종교개혁의 영향」(*The Impact of the Reformation*, Eedrmans, 1994) 또한 종교개혁사를 신학사적 관점에서 파악한 중요한 저작이다. 중세 교회 연구 향에서 언급했지만, 오버만은 종교개혁의 역사와 이념, 신학과 사상을 후기 중세기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상사적' 논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종교개혁에 관한 3권의 작품이 이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1994년에 출판된 그의 「종교개혁」(*The Reformation*)에서는 '연원과 지류'(Roots and Ramification)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이 글에서 이미 언급한 다른 두 권의 책에서도 그 전반부에 후기 중세에 대한 사상사적 섭렵을 연구 제시하고 있다. 오버만은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학자로 인식되고 있다.

3. 신학사적 연구의 두가지 경향성

오늘의 신학사적 연구에는 두가지 특징 혹은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간의 루터, 쾰링글리, 칼빈 등 소위 3대 개혁자들 외에도 그 이후의 개혁자들, 혹은 제2세대 개혁자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1800년대에 상당히 발전된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연구의 폭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흔히 '게르만의 교사'(Praeceptor Germaniae)라고 불린 멜랑히톤(1497~1560)에 대한 연구는 그의 서거 400주년이 되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독일의 저명한 멜랑히톤 연구자인 로베르트 슈투퍼리히(Robert Stupperich)의 도전적인 제목의 저서, 「알려지지 않는 멜랑히톤」(*Der unbekannte Melancthon*)은 멜랑히톤 연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종교개혁 총서(*Corpus Reformation*)로 멜랑히톤 전집이 출판되고, 멜랑히톤에 관한 다양한 사료집의 발간은 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 것이 분명하다.

불링거에 대한 연구 또한 최근 역사신학계의 동향을 보여준다. 사실 불링거(H. Bullinger, 1504~1575)는 17세기 서구신학계에서 칼빈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그 동안 그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했다.³⁸⁾ 그러나 Fritz Buesser가 편집한 그의 전집, *Heinrich Bullinger Werke*(Zurich: Theologischer Verlag, 1972~)의 출간과 함께 그는 각광받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전집의 첫 두 권은 Joachim Staedtke와 Erland Herkenrath가 쓴 전기이며, 불링거 작품집의 첫 권은 불링거가 쓴 다양한 서신들로 꾸며져 있다. 불링거는 자신의 표현처럼 인문주의 연구(*ad humaniora studia*)에 치중했고 인문주의에 기울어 있었던 개혁자였다. 그가 쾰른의 두 인문주의자(Johann Matthaus Phrissemius와 Arnold von Wessel)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위스 개혁교회 전통을 잇는 개혁자였다. 그의 언약 혹은 언약신학의 문제를 연구한 웨인 베이커(J. Wayne Baker)의 「불링거와 언약」(*He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Ohio Univ. Press, 1980)는 주목을 받고 있다.

마틴 부서(Martin Bucer, 1491~1551), 요하네스 브렌츠(Johannes Brenz, 1499~1570), 안드레아스 오시안더(Andrea Osiander, 1496~1552) 등 개혁자들에 대한 대전집이 출간되었고 이들 개혁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특히 부서에 대한 연구는 화란 자유대학에서 봉직했던 코넬리스 아우구스테인(Cornelis Augustijn)과 화란 아펠도른의 빌름 판 엷 스페이꺼르(Willem vane 't Spijker)교수의 연구가 빛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스페이꺼르교수의 「마틴 부서연구」(*De ambten bij Martin Bucer*, Kampen, 1970)와 그의 논문 모음집인 「성령과 말씀과 교회: 개혁주의 개신교의 역사에 관한 논고」(*Geest, Woord en Kerk. Opstellen over de geschiedenis van het gereformeerd protestantisme*)가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도 볼프강 카피토

38) 불링거에 대한 그 이전의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출간 연대순). T. Harding ed., *The Decades of Henry Bullinger*, 4 Vols., 1849-1852; A. Bouvier, *Henri Bullinger le successeur de Zwingli*, 1940; F. Blanke, *Der junge Bullinger*, 1942; G. W. Bromiley ed., *Zwingli and Bullinger*, 1953; W. Hollweg, *Henrich Bullingers Hausbuch*, 1956.

(Wolfgang Capito, 1478~1541), 마티아스 젤(Matthias Zell) 등 비교적 경시되어 왔던 개혁자들에 대한 연구도 우리 시대의 폭넓은 종교개혁사 연구 동향을 보여준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첫 개혁자였던 마티아스 젤이나 20년 연하의 그의 부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수호자였던 케타린 젤(Katharina S. Zell)은 사실 종교개혁사 관련 서적에도 거의 이름 조차 나오지 않았으리 만큼 소홀히 취급되었으나 여류 신학자인 메키(Elsie A. Mckee)교수는 이런 소홀함에 도전했다.³⁹⁾ 어떻든 3대 개혁자 이외의 개혁자들, 혹은 제2세대 개혁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신학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화란의 스페이꺼르교수의 퇴임을 기념하여 봉정한 *Ordenlich und fruchtbar*(Leiden, 1997)는 이런 경향을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저명한 종교개혁사가인 빌헬름 노이저(Wilhelm H. Neuser)와 헤르만 셀더호이스(Herman J. Selderhuis)가 편집한 이 책에는 14명의 저명한 학자들의 16세기 여러 개혁자들의 사상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신학사적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6세기에 대한 신학사적연구의 두번째 경향은 중세후기 - 르네상스 -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사상사적 전의와 변화 속에서 이념(idea), 사상(thought), 교의체계(doctrine)의 대두와 그것이 인문주의자들과 개혁자들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 하는 질문이 주된 관심이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또 이런 이념이나 사상이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 어떻게 조건 지워졌는가 하는 점이 최근 연구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⁴⁰⁾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16세기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두 번째 경향의 바탕 위에서 상호 관련을 지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스

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성취는 개혁자 닉스의 종교적 동기가 그 동력이자 추진력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성공이 닉스와 그의 활동(설교행위 등)의 결과라는 점에서 종교개혁과 닉스의 활동을 동일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는 최근의 역사가 혹은 역사 신학자들은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사회와 경제적인 연구를 통해 종래의 입장에서 떠나 사회적 동기에 초점을 두려는 변화된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에서 편만하게 전개된 종교개혁의 영향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연구하고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부흥을 종교개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으로 연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⁴¹⁾ 물론 이런 접근에도 진실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사건이나 사상을 종교 외적인 요인에 더 큰 강조를 두는 해석은 역사나 사상 밑바닥의 본래적 동기를 왜곡하거나 경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어떻든 이런 경향은 오늘의 교회사 연구의 경향성을 반영해 준다. 이와같이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서들은 토마스 브라디(Thomas A. Brady Jr.)의 「독일 종교개혁의 정치적 상황」(*The Politics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Jacob Sturm(1489~ 1553) of Strasbourg*, NJ: Humanities Press, 1997)과 같은 연구서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신학연구 전반에 있어서 일반적인 연구경향과 초대, 중세, 종교개혁기 각각에 있어서의 주된 연구동향을 소개하였다. 현대 교회의 역사신학적인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정리한 티셀튼(A. C. Thiselton)의 저서, 「하나님 해석과 포스트모던적 자

39) 커터리나 젤에 대한 메키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erdmans, J. H. Kok, *Katharina Schur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Century Reformer*, 1998; Eerdmans, J. H. Kok, *The Writings of Katharina Schurz Zell*, 1997~1998.

40) 종교개혁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종교개혁사 연구에서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다. 종교개혁시대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는 바람직하고, 그 시대의 교회와 신학, 교의의 발전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종교개혁의 순수한, 그리고 신앙적 동기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41) Stewart D. Gill, "He made my tongue a trumpet ...: John Knox, The Preacher,"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51, No. 3, Sep-Dec., 1992, p. 110.

아」(*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⁴²⁾는 우리 시대의 신학 연구의 동향과 행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역사신학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저널로는 미국 교회사학회(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가 발행하는 *Church History*(계간), 주로 교부학을 연구하는 일들에 의해 발간되는 *Studia Patristica*, 16세기를 주로 연구하는 이들의 *Sixteen Century Essays and Studies*,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릿지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하는 계간지인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등이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42) Edinburgh: T&T. Clark, 1995.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再考)

Reconsideration of Understanding about Mission

이복수 교수
Prof. Dr. Bok-Soo Lee

- I. 들어가기
- II. 선교란 용어의 개념
- III. 전도와 선교의 차이
- IV.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와 중심적 사역으로서 전도에 대한 이해
- V.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 이해에 어울리는 요소들에 대한 고찰
 1. 그리스도의 사역
 2. 사도들의 사역
 3. 개혁주의 신학이 이해하는 선교의 목적
 3.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담고 있는 내용
 4. 선교란 용어의 현실적 사용
- VI. 결론